

전북, '농촌인력센터 47개소' 최다 선정

도, 국가예산 사업비 39억6000만원 확보

전북도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촌인력증가센터 지원사업, 공공형계절 근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공모사업 전국 1위로 최다인 47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39억6,000만원(국비 50%)을 확보했다.

농촌인력증가센터는 농촌과 도시의 근로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내국인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으로, 센터운영비, 현장교육 실습비, 교통운송비, 숙박비 등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일손

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형계절근로 지원사업은 작년 4개소에서 11개소로 7개소가 늘어나, 전국 15.7%를 차지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작년 170명에서 440명 도입으로 270명이 늘어난다. 농협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저렴한 인건비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과 소농·영세농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인력을 법무부 '외국인계

절근로자프로그램'을 통해 확대해서 작년 2,778명에서 5,809명으로 3,031명 늘어나 전국 대비 11.7%를 차지한다. 이는 농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지난해 도는 38개 농촌인력증가 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이중 33개 센터가 농식품부 선정, 우리도 5개 센터가 선정되어 운영했는데, 연인원 182천명 정도 근로인력을 공급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 농가, 여성 농가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함에 따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농번기에 맞게 근로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년보다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농촌인력센터 확대 선정을 요청해 온 결과, 전년 대비 10개소가 증가해 모두 47개소가 선정돼 전국 1위로 최다 선정된 것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농촌인력이 부족하지만 올해에는 공공인력을 전년 대비 두배 이상 확대했기에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식품산업연구원' 개원식

고창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낼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개원식이 열렸다.

2일 오후 고창식품산업연구원(원장 이희권)이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개원식을 열었다.

기존 배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는 명칭 변경뿐 아니라 연구원으로 급을 올렸다. 연구원은 지난 2023년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칭 변경에 대한 정식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고창의 지역발전과 식품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싱크탱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시군연구고산업 육성사업(사업비 9억 6000만원)을 통한 식품기업의 관광산업 활성화 △맞춤화 김치소재 6차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사업비 20억원) △한국 탄소제로 에너지 클러스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발굴용역(사업비 9000만원) △고창군 미래전략사업 발굴용역(사업비 9000만원)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원식에선 경과보고, 연구원이 개발중인 프리미엄 북분자와인 시음과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

심덕섭 이사장(고창군수)은 "새 이름을 갖게 된 만큼 고창경제를 선도하는 식품산업과 지역발전 전략&센터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며 "지역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워 고창군민에게 사랑받는 연구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신년 군경모임에 나신 김관영 도지사

2일 전주 군경모임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신년 군경모임에 현화 및 분함을 하고 모역 순례를 하고 있다.

도의회,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에 위로 표명

이시카와현 의회에 도의회 의장 명의의 위로·애도서한 전달

전북도의회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에 국주영은 의장 명의의 대지진 참사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국주 의장은 이날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 야케다 히로아키 의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이시카와현에서 일본 역사상 최대 진도의 지진이 발생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이어 "전북도의회와 도민은 지진에

로 인해 이시카와현 주민을 비롯한 일본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가운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주 의장은 "우리는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동반자이자,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고충과 슬픔도 나누는 이웃"이라며 "전라북도의회는 야케다 히로아키 의장님과 이시카와현 의회가 뛰어난 리더

십을 발휘하여 대지진 참사를 잘 수습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술한 시련을 이겨냈던 일본 국민은 이번 대지진 피해 역시 조속히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위로했다.

한편, 전북도의회와 이시카와현의회는 지난 2001년 우호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경제·관광·교육·문화·스포츠 분야 교류협력 증진, 지식정보교환 및 상호방문을 통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 확대 등에 공동 노력해 왔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환경정책, 기관 표창 '씩쓸이'

환경부장관상2, 도지사표창2 수상 등

군산시의 환경정책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성과는 '2023년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전국 지자체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환경부장관상, '2023년 제3회 화학사고예방관리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 최우수기관 환경부장관상,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새만금 수질개선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이다.

특히, 2023년 환경부주관 제4회 화학안전주간 행사에서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전국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함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 '제3회 화학사고예방관리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제2차 환경부 지질공원 위원회에서 고군산군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최종 의결돼 지난해 6월 21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맞춤형 대책 추진을 통해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우수기관 선정,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지도·점검 및 비점오염저감 관련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통해 수질 환경보전 기반 마련 등 새만금 수질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각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산시가 환경정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관용 기자

도,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실시

군산 역전종합시장 찾아

전북도가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새해 첫날 군산 역전종합시장을 찾아 현장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군산 역전종합시장은 1965년 개설되어 의류, 생선 등 98개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새벽시장도 운영되어 많은 시민이 오가는 시장이다.

이날 점검은 전라북도 및 군산시 관계자, 전기·가스·소방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시장 내 소화전, 배선반 등 시설물 전반과 각 상가 내 가스, 전기 시설 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도 도민안전실장, 군산시 안전건설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시장상인회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시장 입구부터 시작해 출구까지 함께 돌면서 직접 점검에 참여했다.

점검 이후에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관계자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소화전 앞 소방 적치물 제거 등 안전 수칙을 지

켜줄 것을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북도는 인천 호텔 화재, 대구 시장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일(4일간)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에도 기간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 주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시·군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전통시장,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연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다행히 도내에는 연휴 기간 큰 화재 발생 없이 평온하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휴일에도 점검에 참여해 주신 민간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설 명절, 해빙기 등 시기에 맞춰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철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